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전북교육청, 학생 정책제안 53건 접수... 학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등 10건 선정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 학생 정책제안 '정책을 부탁해!' 제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 사업은 학생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희망하는 교육방향이나 학교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제안 사업은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로 5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우수 정책 제안 학생 10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안은 이원철의 '학생조정위원회 활성화', 이진의 '전북 청소년 활동지도 제작', 이진우의 '중학생 수명 안전교육 실행', 정희라의 '운동하는 학교 프로젝트', 권은룡의 '여학생

화장실에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등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도교육청 1층 징검다리에서 우수 정책 제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상 및 차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학생들과 제안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반영 여부 등에 대한 결과

를 공유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내주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안 접수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양현고, 전복외고, 부귀중, 오송중 등 당첨된 학생 4명의 학급에 간식을 지급하는 '친구들아, 간식 먹자' 캠페인 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가 지난 3일 하림그룹과 공동으로 채용연계형 산학교육모델, 하림beSTAR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예비 하림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전주대 - 하림그룹,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발대식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지난 3일 하림그룹과 공동으로 채용연계형 산학교육모델, 하림beSTAR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박 3일 동안 합숙 교육인 비저닝 캠프(Visioning Camp)도 진행했다.

하림beSTAR는 하림그룹 및 계열사 인력수요에 따라 직무별 적성을 고려해 2학년 학생을 조기 선발하고,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해 졸업 시 취업으로 연계하는 산

학교육프로그램이다.

이날 발대식은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유기호 전무,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 황인수 교육혁신본부장 등 각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해 2명의 하림beSTAR 1기생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학생들에게 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비 하림인으로서 바른 인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며 격려와 함께 학생들에게 하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하림그룹 유기호 전무의 동기부여 특강으로 시작된 2박 3일 일정의 비저닝 캠프는 직무 멘토링 및 조직 생활에 필요한 리더십, 의사소통, 창의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직무 멘토링에 하림그룹 인사팀, 디지털전략팀, 마케팅팀 임원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가졌다.

한편, 전주대와 하림그룹은 지난

2018년 10월 채용연계형 적성 중심 인재육성 업무협약을 체결, 7개월간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했으며, 하림그룹 인·적성검사, 임원면접 등 하림그룹의 공채 선발절차에 준해 하림beSTAR 1기 22명 학생을 선발했다.

또 전주대와 하림그룹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림beSTAR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공동 선발·육성하기로 했으며, 적성중심의 우수 인재 육성과 채용으로 연계되는 산학협력 진화형 인재 양성 모델을 지속해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치아관리 인형극 큰 호응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에서 위탁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차경희)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완산구에 위치한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건강한 치아관리 인형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열음나라 치카와 지구별 특공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인형극은 달콤 새

콤나라에 사는 아치와 친구들이 양치 대장 치카를 만나 건강한 치아 관리에 대해 배우는 과정을 연극하며, 어린이들이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통해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무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어바운스로 세팅하고 공연 전에는 각종 레

이지 쇼와 신나는 노래와 율동으로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했다.

연극을 진행하는 이틀 동안 약 1,3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재밌는 인형극도 관람하고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경희 센터장은 "어린이들은 학부 모와 교사가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 친근감 넘치고 유쾌한 대형 캐릭터들이 스스로 교훈을 찾아가는 과정을 더 오래 기억한다"며, "어린이들이 건

강관리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의 위생·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위해 어린이건강생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2,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체험관 및 캠프에 참여하며 다양한 체험 등을 통해서 쉽게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저경력교사 대상 직무연수 실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내 신규 및 저경력교사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진행한다

직무연수는 수강을 희망한 관내 중학교 신규교사들 또는 3년차 이하 저경력교사 40명으로 5회에 걸쳐 최근 후 매주 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이다. 이에 막 교직에 첫발을 내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1회차에는 좋은교사수업코칭연구소 박윤환선임연구원과 함께 교사로서의 성찰 및 수업 이야기를 나눴고, 2회차에는 혁신학교 교사 네트워크 선배교사들과 함께 학생 생활지도, 교사-학생, 교사-교사 간 평화로운 관계 맺기 부분에서의 어려운 점과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이

아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3회차에는 경기도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 박현숙선생님으로부터 교육과정 재구성 및 학습자 배움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오는 4회차에서는 교과목별 분야별로 선배교사들과 학습자 배움중심 수업 사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15일 5회차에는 과정 평가와 함께 '연극을 통한 세심 보기'를 하며 연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5회차 15시간 직무연수를 통해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관계가 평화로워지며, 또 비전을 발견해 학생들이 교실에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대입지원단·진학부장 역량강화 나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및 진학부장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5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 및 진학부장 등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5일은 서림고 장진호 교사의 '2020학년도 지역거점대학전형 이해 및 지원 전략, 특성화 학과, 계약학과 소개', 오산고 박정준 교사의 '2020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및 학기말 학생부 기재 마무리, 변화된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 특강과 함께 대입진로진학지도지원단 임별 및 진학부장 권역별 협의회가 이어졌다.

6일은 서라벌고 유석용 교사의 '2020학년도 수시모집 상담 및 지원 전략(서울주요대학)', 전북여고 안승

국 교사의 '전북진학지도지원단 역할' 특강이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20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능력있는 진학 전문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대입지원단과 진학부장 역량을 키워 단위학교의 수시전형 진학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은 단장을 맡은 안승국 전북여고 교사를 비롯해 총 60명의 진학 전문 교사가 참여하며 지난 2월 발대식을 갖고 연수 및 현장지원팀, 입시분석·자료개발팀, 대입전형 연구지원팀, 대입 진로진학 상담팀, 대외협력팀으로 나뉘어 대입 진학지도 정보 공유 및 전략 수립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왔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박문제관리센터, 군산 시민 대상 캠페인 펼쳐

전북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센터장 오남경·이하 전북센터)는 5일 군산시청에서 정신건강복지사업 관계 기관 및 군산 시민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도박문제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정신건강 워크숍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전북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박문제 인식개선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캠페인을 통해 군산시 지역민에게 도박문제자가진단(CPD)을 활용해 도박문제를 점검하고 현장 상담을 했고, 도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홍보물품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남경 센터장은 "최근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발생 시 조기에 개입하여 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정하고 전북대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전북지역 문제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치유상담 서비스와 예방 교육 및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캠페인 등을 제공하는 전문상담기관이다.

도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은 국번 없이 1336을 통한 전화 상담과 온라인 네티라인(<http://netline.kcgp.or.kr>)을 통해 채팅상담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